

AUTHOR 이근삼

TITLE 종교개혁의 정신

IN 개혁주의

16호 (11, 1966): 3-16

도예배, 형상예배, 미신적 의식 등은 신령과 진리로 신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 하였다.

(6) 경건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에서 나오고 천진하는 것이라 아침에도 불구하고 형식화되고, 주기도와 마리아 송별, 금식, 회사, 신부에게의 교회, 성전 순례 등의 기술적 행위로 치화하였다. 선종은 절보나 암에 치중되고 이기적 보수에 등기를 가지는 궁녀 유타로서 행하여 치계 되었다. 사제는 돈으로 칠보나 암에 치중되고 이기적 보수에 등기를 가지는 궁녀 유타로서 행하여 치계 되었다. 사제는 법황이 거룩한 일로 인정되며, 성·베드로 성당을 전족한다고 하였다.

정직한 로마교 학자들이 비록 교회의 목오로 성과, 예라시 교회의 교리적 비계 혁성을 주장은 하지만 그들은 도덕 개혁의 희폐와 16세기의 도덕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Treatise의는 종교 개혁자 일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 서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구교내의 교육자들·교인들의 개혁을 시도한 것도 분명한 일이다. 그래서 Pius IV세는 회의의 목적 중 하나는 “도덕을 지향하고 교회권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종교 개혁을 위한 준비

16세기 카톨릭 교회는 비록 그것이 그 머리와 자제들이 무폐는 했으나, 아직도 살아 계신 신의 교회였고, 종교개혁을 출산케 함으로서 인간의 전통의 전제를 놓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한 기초를 다시 열어준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다로마 카토

릭 교회에서 나서 영세를 받았고, 것을 박해 하였다. 신령과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드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빼앗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대부분이 구교의 승려들로서 저희 양심으로 법황에게 순종할 암속한 신음을 하려고 세 단에서 성기던 문을이다. 그들은 교회를 떠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나, 그들 자신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 교권으로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카톨릭 교회에 실수가 대소 있기는 했지만 가장 순수한 동기와 교차적 목적의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 일으킨 이 변혁으로 유익을 받지 못한 국가는 없었다.

4. 종교개혁의 정신과 목적

복음주의를 표방한 신교의 정신과 목적은 사도 바울이 갈라티아 교회에 보낸 반(反)유대주의 서신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군세계에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벗지 말라”(갈 5:1) 신자의 자유를 말하는 신비주의의 정전파, 교전파, 문학의 부흥, 일반의 저작 작성, Reuchlin과 Erasmus의 성서 연구, 세 민족주의의 발흥, 영국의 Wyclif 와 Lollards, Bohemia의 Hus와 그 추종자들, 독일과 화란의 John van Goch, John van Wesel, Johann Wessel, 이태리의 Savonarola 등 이런 사람들과 사건들은 기독교 세계의 질을 닦고 대변동에 대한 본심을 감당했다.

14. 15세기에 이상과 같은 것들을 이 데 종교 개혁 원리의 교리에 필 요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의 종교는 드디어 물불었으나, 거기에 번개 나갈 기쁨은 충분히 준비되었었다. “신이 교회를 세우시면 언제나 사탄은 그 옆에 기도소를 세운다”는 격언과 같이 인간의 성품은 본질이 부패하여 이와 같은 성업에 많을 수 있는가?” “죽임에 어떻게 신천에 고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민하는 양심에 평화를 얻겠는가?” 종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최고로 고려한 것에 대해 서게 되었다. 그것은 현재 세상보다 장래 세상을 더 생각할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모든 정직한, 국가적, 문학적 문제를 종교에 종속시키고 종교를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수도사들이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비관주의를 배격하는 낙관주의자들이 있으며, 사교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행동의 사람, 열심있고 전지하고 힘에 차 사람, 이기주의 동기와 목적에 서 자유한 사람, 신앙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도들의 날이 앞선 모든 사람과 동등한 사람들이었다. 종교를 중심해 서 인간 생활과 활동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정치적, 지민적, 자유파와 문학의 발전에 큰 힘을 준 것이다.

종교 개혁은 법황 교회가 그리스 도와 신자간에 두었던 강애 물들을 제거하였다. 종교개혁은 신파 인간 간의 유일 하시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척첩 연합의 문을 열어 주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부의 소리없이 모든 땅에 전파할 수 있는 복음으로 만들었다. 이것에 이 곧 첫 원리에 활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에 잇길을 가져 오게 했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주제 기독교 자체의 부흥이었고 동시에 기독교가 전에 알현된 이상으로 더 깊은 감사와 그 적용을 가지게 한 것이다.

종교 개혁에는 근본원리 3조가 있다. ① 성경의 최고 권위—구교교회의 전통 위에 성경이 있다.(객관적 원리)

② 신앙의 최고성(주관적 원리) 정교직보다 나를 바 아니니.(사회적 원리)

③ 신자가 세사장치를 가지며 특별히 그들이 그들의 세사장치를 바 아니니.(사회적 원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될 것으로 그리스도는 신자의 죄와 죄를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수도사들이 아닌

5. 성경의 원리

종교 개혁의 주관적 원리는 그리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로서 신앙과 생활이 있어서 성화구요한 유일로써 이는 것으로서 마카토릭에서 주장하는 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신앙의 공동체로 통제 관계를 조정시키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다.

종교 개혁은 현존 교회의 교리를 신앙에 종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에 로마교에서는 성경을 전통에 종속되고 그 해석은 법황의 통의에 제한된다. 교회는 신의 해석자가 되어 모든 종교 교회는 신의 해석자들은 다 같이 경고하는 신앙에 대한 양심적 교백신조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인본주의자들은 헬라, 로마의 이 봉종교의 정신을 부흥시키고 교전에 둘어갔으나 종교 개혁자들은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직 기독교 정신을 부흥시킨 것이다. 그들이 비난이 후 전연 알지 못했던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물이 불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종종이란 무덤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종종이란 무덤에서 생명과 능력 있는 그의 말씀을 다시 청파하시게 된 것이다.

교적자들만의 책임었던 성경은 새로 번역되고 그것은 또한 일반 백성의 책이 되었다. 이기는 교적자와 허락이나 간섭없이 하나님의 사(聖徒)의 무릎앞에 앉아서 월천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종교 개혁이 이룬바는 영원히 한량없는 축복의 균형이 될 것이다.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은 3년내에 로마교 교적자들이 가진 과거 라틴 Vulgate역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으며 신교 성서 공회가 1년에 파는 성경 승가 종교개혁 이전 15세기 동안에 팔린 부수보다 더 많다고 한다.

로마교회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를 인정 하기 하지만 교적자들의 종교를 통제하기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신앙에 종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에 로마교에서는 성경을 전통에 종속하고 그 해석은 법황의 통의에 제한된다. 교회는 신의 해석자가 되어 모든 종교 교회를 신의 해석자로 임명한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운데 뒷되고 한다.

교적자들은 다 같이 경고하는 신앙에 대한 양심적 교백신조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종교 개혁자들은 다 같아 경고하는 신앙에 대한 양심적 교백신조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Sola fide, Calvin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선택이 구원의 궁극적 토대 가 되며 생사간에 위로가 된다. 그

러나 루터와 칼빈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했다. 그것은 근본에 있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구원 받는 주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행 4:12)는 보다 보편적 선택에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이다.

루터는 이 칭의의 구원 교리를 기독교 체계의 중심이며 교회 존재에 대한 신조라고 하였다. 신교 칭의 교리는 로마교와 다른점이 두 가지 있다. ① 신교 칭의는 신의 선포적 법률에 대한 회개하고 점차로 성장하는 성화에 있다. ② 신앙은 마음과 의지의 선양과 행위로 이론적 신념이나 교회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는 다르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바울에게서 알았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라는 옥사정의 물음에 "주예수를 믿으라 그 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은 대답하였다.

신교는 결코 선행을 멀시하거나 동한히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은 신령을 종속시키고 양보다 절에 그 가치를 평가한다. 선행은 칭족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교는 누구든지 성경을 떠나 읽도록 허락한다. 그것은 나무의 증표이다. 그것을 나무의 뿌리가 뿐하고 다만 칭의(稱義)에 필요한 뿐이다.

로마교는 국단적 교류 계급제도에 개는 수동적 순종의 입장으로서 평신도를 뿐이다. 주교는 교회를 가르치고 지배하고 지회만 회의와 대회를 구성하고, 입법과 행정의 전권은 교회를 구성하고, 입법과 행정의 전권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평신도는 부들은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다. 그러나 신약에는 모든 신자는 루터는 신자는 참으로 영적상 있으며 그들에게 차이는 없지 우리는 다른 품이다. 모든 자체는 각각 계임을 하며 영광을 누른다. 이는 한 세례, 한 세례, 한 신앙을 가진다. 또 이것만 신령만이 세사정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며 배제 하시는 성령을 준다. 그리하여 거룩한 외 천부적(天賦的) 능력으로 켜 된다. 이 내적 기름 부으심은 주교나 법황이 주는 것보다 참된 것이다. 이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나 순결이 세사정의 능력을 가지게 해 주신다. 이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바라는 것이다"라 하였으니 이 원인이 그로써 교회 정체와 행정에 평신도를 협동활동케 한 것이며 폭넓은 기부결정 투표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마다 각자의 운서에 따라서 일반적 선을 위해 유익한 회원이 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신교국가에서 유하는 종교체, 공민체 자유의 근원인 것이다. 종교체 자유는 공민체 교회에서 업별되는 것이다. 루터는

신교의 사회적, 교회적 원리는 그것은 일반적 교회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종교체 자유는 공민체

6. 이 신득의(以信得義)

7. 평신도의 사제직 (司祭職)

• 연재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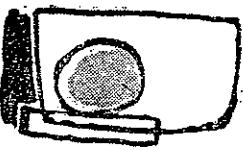
나는 천사가

아니로소이다

감

기

별



네이비드는 점안일을 끝냈는 일에 아주 무능했다. 하계 속 그 분을 본 명체 주었더니, 비록 여러분의 돈은 우리의 자동차를 수리해 오게 했으나, 예문은 점지들과 세탁할 옷파기와 애물들이 무너기로 쌓여 있었다. 교인들은 폭사부인이 일하고 있는데 배해 그들의 판단을 논의하기 위함 서간을 냉여 주지 아니했다. 나는 언제나 바쁘거나 뜻에 차도 남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 무용한 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침실로 들어가기 전 밤들어 뒤진 난 노오포가 "엄마, 내가 오늘 아빠한테 준 쟈린 후라이 세드워치를 봤으면 좋았을 걸!"하고 말했다. 나는 배 얻히려고 예소면서, "예아, 너는 매일 아버지의 절심을 배가 만드니?"하고 물었다. "이때는 거기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셔, 그럴때 이때는 전회를 거시고 또 커다란 책들을 하루 종일 읽고 계셔."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마음은 풍물 내리 않았고 나는 이 모든 일들이 훌륭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네이비드가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내게 칙칙한 까耄를 해 줄 때 나는 집제적인 전화인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남편이 폭사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나의 신념을 이미 믿어드렸다. 시작했을까? 하고 생기해 보았다. 그 날 밤 나는 남편과 마주 않았다. "네이비드, 당신은 우리들이 주위와 아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나오? 그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당신이 나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지식들을 과연 시커기 전에 세발 폭사장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사할 다른 걸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무 말도 않았고, 또 나와는 그 일을 의논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분의 무엇을 생각하던지 알 수 없었다. 내 가 짐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분은 어떤 모임이나 다른 일을 위해 출발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나는 마음이 이곳 고고히 그의 계획에 순응하고자 했다. 그 일 주일 후에 남편은 철 마일 름 벌어진 곳에 있는 보험회사에 일자리를 가 생겼다고 내게 말했을 때 나는 그 일자리에 들어가도록 권했다. 나의 간청하는 말은 거의 조리가 서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잠시 동안 그 일을 해 보자는 데에 본의가 아니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악도의 물결이 나를 감쌌다. 4주일 후에 우리는 조용히 그 교회를 놀라나왔다. 그 다음은 이제는 천국 같았다. 우리는 조그마한 아파트로 이 새하여 익명을 사용했다. 나는 나의 세로 발 전환 자유를 험쳤다.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에도 누구하나 우리를 놀라게 보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입은 복의 복에 대해 서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고, 말을 철 면서 실증나게 하는 사람도 없었다. 어밀 날 아

침은 암탉 시삼 문가지 헬거을로 보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온 방에 들어 올기도 했으며, 일요선물을 온 방에 끌어 올기도 했다. 그것을 네게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주일이 되어 낮을 때 나는 아주 신경이 예민해졌다. 걸으면 헤엄자 악하게 하려고 예섰고 또 네이비드가 이런 행동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려 하며 드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애들이었다. 나는 남편이 절심 치킨에 절대로 끌어오기를 바랐으며, 올라오는 전회의 빨 소리가 그리워졌다. 나는 교인들이 선방해 줄 것까지 바라게 되었다. 나는 나를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느끼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내게 주인 악교지 까지도 나눠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밤에는 하나님의 성직자 커 가고 있었으나 곧 네이비드가 행복하지 못하나는 생각이었다. 나는 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서 주신 소명을 강제로 팽개치게 했고, 내게 해 주었을 때 나는 내 속에 서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주일 후에 남편이 어느 한 새 교회에 청원을 해 보려는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 느꼈다. "네이비드, 세발 이번에는 남편 혼자서 가세요. 그들로 하여금 나를 빼놓고 남편은 혼자서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도록 하세요!"하고 나는 간절 했다. 그 주일 날 남편은 혼자서 차를 몰고 갔다. 네이비드는 돌아와 "그것은 진정한 요구길이 보였어. 그러나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먼저 들피다."라고 했다. 그들이 내 남편에게 다시 예식 교회를 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분은 내게 동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는 예식 교회를 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분은 대답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 월리의 청원 발전은 일반 교육의 방향, 교회의 자리, 자녀와 국내 외에서 모든 삶의 일에 중시되어야 한다. 이 원리의 좋은 효과는 평신도에 보급됨으로 보여준 것이며 경건한 일상에 또한 보여지고 있다. 이 월리의 청원 발전은 일반 교육의 방향, 교회의 자리, 자녀와 국내 외에서 모든 삶의 일에 중시되어야 한다. 예식 교회는 평신도의 지적 협력에 있는 것이며, 예식 교회는 세사들의 소유한다. 루터파 교회는 신학자와 교회이고, 개혁파 교회는 한 교육법은 사람과 우아한 천송이 있는 교회이고, 개혁파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이고, 회성의 설교자와 회중이 있는 교회이다.

(마음속에 계속)



시작했다. 그 주일의 남은 날들을 혹시 그들이 나의 음식에 예한 소리를 서입 해 줄까 하고 생각하면서 조조히 보냈다. 주일이 되어 낮을 때 나는 아주 신경이 예민해졌다. 걸으면 헤엄자 악하게 하려고 예섰고 또 네이비드가 이런 행동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려 하며 드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애들이었다. 나는 남편이 절심 치킨에 절대로 끌어오기를 바랐으며, 올라오는 전회의 빨 소리가 그리워졌다. 나는 교인들을 아이들의 입에 넣어 주어 며 끌어오도록 했고, 나의 숨수침을 걸어놓아도 되도록 했고, 나의 숨수침을 걸어놓아도 되도록 했고, 내 밤에는 부인의 텅놓친 동작을 전부 지켜보았다. 그들이 나의 텅놓친 동작을 전부 지켜보고 계셨다.